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KBS  **준현**

김영준 기자



2024년 5월 갑작스런 폭설에 강원도 곳곳이 설경으로 변했다.

여름을 준비하던 2024년 5월15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다. 설악산에는 40cm나 쌓였다.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늦게 내린 눈이다. 단단히 마음을 먹으며 현장으로 향하던 취재 차량에서 촬영기자 후배가 내게 물었다. 후배는 입사한 지 반년이 넘지 않았다.

“산불 취재가 힘든가요?
집중 호우 취재가 힘든가요?”

나는 강원도에서 15년 동안 취재기자로 일하면서 산불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

해를 많이 겪었고, 강원도와 인접 지역인 충북, 경북, 경기도 등 곳곳을 다니며 재난 상황을 취재해 왔다. 산불과 집중 호우, 태풍 등등 자연재해 취재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기억에 남아 있는 많은 재난이 하나같이 버거웠기 때문이다. 여전히 당시의 취재 기억이 생생하다. 강렬한 기억만큼 재난 보도의 보람은 크지만, 긴장감도 높다.

재난 취재는 대형 사건 사고 취재와 사뭇 다른 면면들이 많다. 우선 취재와 제작 그리고 중계방송 곳곳에 예측이 어려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만큼 취재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취재 현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KBS뉴스 특보 화면

장에서 재난 피해자 등 취재원에 대한 취재 여건도 제한적이어서 자칫 무리하다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갑자기 마을이 고립되거나 통행 차단, 또는 취재 장비가 침수돼 애써 찍은 영상과 사진을 잃을 수도 있다.

이처럼 무용담 같은 그날그날의 기억이 오가는 사이 난 답을 기다리는 후배에게 둘 다 똑같이 어렵다고 답했다. 말하는 내가 느끼기에도 재미없는 대답이다. 그런데도 둘 다 어렵고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체득한 결론이다.

“산불은 도깨비처럼 움직이니깐...”

산불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갑자기 어디에서 불씨가 날아올지 모른다. 불이 없는 듯 보여 접근했다가는 위험하다. 순식간에 불이 타오른다. 꺼졌던 불도 다시 피어오른다. 순간 신속히 대처해야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의 송출과 뉴스 제작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019년 4월 고성 산불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당시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급하게 촬영 장비를 챙겨 고성으로 출발했다. 고성 산불의 기세는 대단했다. 춘천에서 고성으로 가는 길은 점점 차단돼 갔고, 현장에는 도깨비 불씨들이 강풍을 타고 눈앞에 날아다녔다. 산과 주택은 불에 탔고, 연기가 자욱해 앞을 구분하기도 어려웠다. 통



2020년 강원도 철원의 기록적 폭우로 한탄강이 범람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신망도 단절됐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피난 가기 바쁜 상황이었다. 얼굴에는 검은 재를 묻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도 불길의 거센 지역을 찾아 근접하면서 취재를 이어갔다. 생생한 화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산불 못지않게 집중 호우 취재도 버겁다. 특히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퍼붓는 빗줄기와 강풍에 견디며 이동하고, 인터뷰하고, 기사를 쓰고, 중계방송하는 일은 매우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2020년 강원 중북부 지역 제철라성 집중 호우가 압권이었다. 당시 기록적 집중 호우는 역대 최장기간인 51일을 넘어서 54일을 기록했다. 그치지 않는 비가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한마을이 통째로 침수되고, 마을 하수와 축사 오염물질이 역류하고, 집기가 모두 쓸려 내려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험을 최소화해가며 취재, 특히 중계방송에 집중했다. 구름대 이동을 살피며 취재해나갔다. 이때 급하게 먹은 햄버거에 취재진 모두 배탈이 났고, 오염된 물이 역류하는지도 모르고 물속을 오가면서 피부병이 생긴 경험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앞으로 재난 보도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들어서는 국지적 집중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강원도 고

성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1~2 시간에 쏟아진 일도 있다. 순식간에 쏟아진 비는 배수 능력을 넘어서 침수 피해로 이어진다. 어른 주먹 크기의 우박이 내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초토화하기도 한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씨가 2024년 6월2일이다. 국제뉴스를 보니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한다. 화면 영상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를 피해 서둘러 뛰어나는 주민들 모습이 담겨있다. 일본 언론사 기자의 중계 모습도 보았다. 낮익은 모습이다.

한국도 곧 장마가 시작된다. 운이 좋아 심각한 폭우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올해에는 강원도 등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없었다. 다행이다. 그래도 걱정이 앞선다. 재난 보도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 아니다. 공영방송사 지역국에서 일하는 언론인으로서 재난·재해 보도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이 관련된 중요한 책무임을 잘 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재난 재해 보도를 제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다. 갈수록 돌발적 재난·재해가 늘면서 지금보다 진일보한 재난 보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주민의 삶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일이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마을의 새로운 집단이주 한 마을의 모습

2020년 8월에 1000mm 넘는 집중 호우에 마을 전체가 침수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 전체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집단 이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철원 이길리는 최북단 집단 이주 마을이다. 정부가 이 마을과 주변에 대한 항구적 수해복구를 위해 예산 171억원을 집단 이주 비용으로 활용해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길리 마을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1999년 침수 피해 이후 집중 호우로 4차례 물난리를 겪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 집단이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 지어진 이름은 버들골마을로 60가구가 이주했다.

이런 재난 재해의 상징적 마을 이주 과정에 대한 후속보도, 심층보도를 하지 못한 것이다. KBS에서 철원군 이길리 마을의 물난리 상황을 여러 차례 중계 보도한 것도 나 자신이었다. 당시 마을 전체가

잠긴 상황을 이틀 밤을 새워가며 중계 보도했다. 그런데도 후속 취재를 잊었다? 먼저 스스로 되돌아봐야 했다. 이길리 마을이 어떻게 복구되고, 어떻게 집단이주를 위한 계획들을 세웠는지, 두 번 다시 물난리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법들을 고안해서 적용했는지를, 그 방안에 사각지대는, 소외된 주민은 없는지 취재하지 못했다.

재난·재해 보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밀착 취재해 일상생활 속에서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전달하는 것보다 정보성과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여건과 상황, 점점 낮아지는 관심을 탓하며 등한시하는 것이다. 이른바 ‘생생한 화면이 있는 발생’이 없다는 점에서 보도와 취재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



필자가 폭우 상황에서 중계 방송을 하던 모습

도 있을 것이다.

재난 재해에 대한 보도가 어떠한 계기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수시로 있으면 어떻게 생각한다. 일본 NHK가 지진과 태풍, 대형 사회 재난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불의 고리’라고도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다. 지진 발생 위험이 큰 나라이다. 화산 분화, 태풍 통과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지진 대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다. 그만큼 대책도 상세하다.

일본 공영방송국인 NHK는 재난 발생 후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등등의 기획 타이틀을 가지고 과거의 재난 상황을 재조명한다. 단순히 피해자의 명복을 기리는 내용의 보도가 아니다. 그 안에 당시 재난의 이유와 피해 규모, 현재 변화된 대비 상황과 부족한 점을 보도한다. 당장 ‘현재의 발생’은 아니지만 ‘이전의 기록’ 속에서 ‘미래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 교훈을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난 정보를 제공한다. 취지이다.

“불시 재난 증가…세밀히 대비해야”

2024년 6월12일 오전 8시26분쯤 전북 부안군에서 M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처럼 이제는 ‘불시’로 다가올 재



KBS춘천방송총국에서 실전과 같은 재난방송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난을 ‘상시’ 준비해야 할 때이다. 언론의 공적 목표 속에 설계된 가치 있는 재난 보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지역을 잘 알아야 한다. 기후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며, 과거의 재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재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쉽

게 확인해 보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자 한명 한명의 노력과 관심,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체계적인 보도 시스템이 더해져야 한다.

“오늘은 맑은 하늘, 재난보도는 현재 진행형”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보도국 구성원들과 취재원들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사전 기획보도 구성도 마련하고, 변화하는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재난 CCTV 확보는 물론 터치스크린(touch-screen) 장비에 과거의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도하는 연습도 한다. 정보성이 큰 재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난 취재기법에 대한 토의와 공유도 이어가고 있다.

곧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제는 여름 태풍이나 봄철 산불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사회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재난·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언론이 마주한 현실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할 것은 재난·재해 보도를 일상 보도로 확장해야 한다. 강원도 철원

군 동송읍 이길리의 복구와 이주 과정 취재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지역의 중요한 재난 대처법을 두 번 다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재난 재해 정보를 TV 뉴스 보도는 물론 다큐멘터리, 유튜브 게시 등 다양한 방식의 제작도 고심해야 한다.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재난 피해를 줄여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재난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일까 거듭 생각해본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재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도가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 산불과 집중 호우, 지진 등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고,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도 재난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

KBS춘천 김영준 기자